

고려 전기 고려의 외교, 고려-송 관계, 고려-거란 관계 등

전재성

I. 질문들

- 고려 초 고려는 황제를 칭하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는 등 자주의식을 보이는데, 이는 외교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 새롭게 등장한 고려, 송, 거란의 3각관계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 등 당시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고려 외교전략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 거란과 지속된 30년 전쟁 속에서 고려의 전쟁과 외교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 이를 통해 10-1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II. 고려의 북진정책과 1차 고려-거란 전쟁

고려 태조대(918~943년)의 북진정책은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을 군사적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에서 출발

태조의 북진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즉위 초부터 추진한 서경 건설 단계, 둘째 926년 발해 멸망 이후의 북진정책과 발해 유민들의 수용 단계, 셋째 931년 안북부(安北府)의 설치 및 청천강(淸川江) 유역 진출 단계

태조는 926년 발해의 멸망에 따라 남하하는 유민들을 적극 포섭, 북진정책의 중요한 인적 자산으로 활용

대동강 유역의 서경 건설 이후 태조는 청천강 이남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안북부를 건설

고려정부는 대동강과 청천강 사이 지역에서의 축성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청천강 이북지역의 축성작업 추진

태조대 서경과 안북부 건설을 통해 청천강 이남 지역까지 진출하고, 정종·광종대의 축성을 통해 청천강 이북을 넘어 압록강 일대까지 진출

거란(907년 건국)은 이러한 발해를 태조 말기에 멸망(926년)시키고 그 땅에 동란국(東丹國)이라는 괴뢰정권을 수립

동란국(926~982년)이 발해 멸망 이후 요동 지역의 제 세력과 거란 사이에서 완충지대로 존재. 요동지역의 여진을 동란국을 통해 간접통치하고자 했음.

동란국이 약화되면서 그 영향력 하에 있었던 여진이 점차 성장하여 중원의 송(宋)과 말 무역 유지.

여진의 대(對)송 말 무역 루트를 보면 압록강에서 바다를 건너 사문도(沙門島)를 거쳐 등주까지 이어짐. 송 진종대에 이르러서는 여진이 송에 말을 연간 1만 필 보냄.

송으로 흘러들어간 말들은 결국 송의 대거란 전선에 투입. 거란 성종(聖宗, 982~1031년)은 이러한 여진의 대송 말 무역을 좌시할 수 없게 됨.

고려와 거란 모두 980년대초 여진 문제에 고심하던 차 고려-거란 전쟁 발발. 고려는 압록강 유역의 여진을 정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나, 984년의 실패로 인해 역량의 부족을 절감.

<표 1> 993년 강화회담 시 고려와 거란의 입장⁹²⁾

거란의 주장	① 고구려 땅은 거란 소유인데 고려가 침식하고 있으니 서경 이북지방을 [거란에] 할양하라. ② [송과 단교하고] 거란에 귀부해 조빙(朝聘)하라.
고려의 주장	③ 우리나라는 국호를 고려로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경계로 논한다면 오히려 거란의 동경(東京)도 고려의 영내에 있다. 우리가 [거란의 땅을 침식한 것이 아니다. ④ 압록강 내·외는 고려의 영토인데 여진이 점거하고 있어 거란에 조빙하지 못하고 있다. 여진을 축출하고 옛 땅을 도로 찾아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가 통하게 되면 거란에 조빙하도록 하겠다.

서희와 소항덕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헤어졌고, 거란군도 철군했으며, 고려는 청천강 이북 압록강 이남의 280리 지역에 해당하는 소위 강동 6주 지역을 확보, 거란의 요청에 의해 이 지역에 축성함.

소항덕의 강역(疆域) 공여 요구가 일종의 명목적 요구사항으로 제기된 것이었을 가능성

서희 자신이, 당시 거란의 의도가 고려의 구지(舊地)를 뺏는 것 보다는 다른 것에 있

었음을 간파

고려가 거란의 눈에는 도발적인 것으로 비추어졌을 수 있는 고려 압록강 이남 지역 영유론(領有論)을 강경하게 설파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거란의 그러한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가능. 실제로 994년 회담 이후, 고려가 여진을 축출하고는 다수의 진성(鎭城)을 쌓음. 서희가 축성한 8개의 진성은 모두 청천강 이북 압록강 이남에 위치하여, 고려가 압록강 일대의 여진을 제압하는데 요충, 거점의 역할 수행.

여진족 관리에 고심하던 거란의 고충과 여진정벌을 위한 전기를 필요로 하던 고려의 제안이 만남으로써, 양국 간 분쟁이 더 크게 비화되지 않고 종료되었으며, 동시에 양국 간 경계선도 압록강으로 정리될 수 있었던 것

III. 고려-거란 관계사

1125년 거란의 멸망까지 약 200여 년간 이 두 나라는 교왕과 대립, 외교와 전쟁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관계 유지.

3단계론: 직접적인 이해 문제에 얽힌 교류나 충돌도 없이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국의 외교 동태를 관망하던 초기 70년 정도가 첫 단계이고, 이어서 993년 거란의 고려 침략을 시작으로 약 30년간 양국이 전쟁 상태에 있던 때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거란의 무력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고려가 거란에 정치적으로 '稱臣納貢'하며 대체로 안정된 평화관계를 유지했던 마지막 100여 년.

993년 거란의 첫 침공을 1차 전쟁, 1010년의 전쟁을 2차 전쟁, 그리고 1014년부터의 3차 전쟁으로 나누는 것이 관행. 그러나 1010년에 발발한 2차 전쟁부터는 차수의 구분이 어려움. 양국은 제대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때부터는 거의 해마다 전쟁이 벌어짐.

양국이 관계한 200여 년의 기간 중 무력충돌은 특정한 30년의 기간, 즉 거란의 고려 출정 명령이 떨어진 992년부터 고려의 거란에 대한 칭신납공과 거란 연호 사용으로 최종 종전이 확실해진 1022년까지의 30년이 전쟁 기간.

중국이 오대십국의 분열을 마감하고, 後晉 왕조 때 거란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거란에게 양도한 연운십육주 지역을 제외한 전 중국을 통치하는 강대한 통일왕조로 등장. 979년 송 태종이 3년여에 걸친 몇 차례의 시도 끝에 北漢 정복에 성공. 그리고 송이 연운십육주의 수복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사회 내 重心의 자리를 두고

거란과 직접적인 대결 시도.

980년대 초 거란의 요동 여진 토벌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공격적인 세력 확대로 선회한 거란의 동방경략 정책의 시작.

982년 거란 景宗이 사망하고 12세의 聖宗이 거란의 6대 황제로 즉위하여 1031년 사망시까지 무려 50년간 재위. 거란과는 40년 이상 외교관계를 단절한 채 중국과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해 온 고려가 송의 배후세력이 될 가능성이 컸으므로 고려 정벌을 아둘러 계획.

고려에서는 기본적으로 宋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전통적인 중화세계와의 조공책봉 질서를 따르는 외교노선을 고수

고려 초 태조는 발해와 화호를 맺다가 별안간 다른 마음을 품어 舊盟을 저버리고 하루 아침에 진멸시켰기 때문에 교빙할 수 없다고 결정.

송은 고려와 여진 모두 송에게 변방 소국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전통적인 중화제국의 권위를 기대하며, 책봉과 조공 형식의 상하관계를 수용하는 외교를 전개. 985년 송의 감찰어사 韓國華가 고려에 온 주요 목적은 연운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거란과의 전쟁을 계획하는데, 여기 고려가 참전할 것을 요구. 고려는 사실상 시행하지 않음. 외교적 목적 때문에.

거란의 침략 전선 앞에 아직 여진이 존재하고 있으며 송과 거란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불투명했지만 기존의 聯宋 외교정책이 흔들릴 만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님.

1차 고려-거란 전쟁. 거란의 정규 전투 병력을 10만~15만 전후로 추산하고, 거란 군사 규정으로는 都統을 임명하지 않는 원정은 기병 6만을 넘지 않았으며 이때의 병력 수도 최대 6만 정도 추산.

고려는 거란에 사대하고, 거란은 압록강 이동지역을 고려에 주어 양국 사이의 통교를 방해하는 여진을 축출하고 성을 쌓는다는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 이후 송과의 관계 정리, 거란에 사대. 송은 986년 북벌에서 연이어 참패를 당한 뒤 對遼 정책은 進攻에서 防禦 전략으로 선회.

거란으로서는 송과의 경쟁이나 동방으로의 지배력 확대에서도 제3의 배후 세력으로 신경 쓰였던 고려를 거란의 조공국으로 끌어들이는데다, 압록강 요충인 보주 지역을 장

약하여 고려와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고려의 서북방 진출을 거기서 차단. 고려의 입장에서 거란의 위협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거란의 지원을 받아가며 여진에게서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소득.

그러나 표면적으로 거란과의 우호관계에 있던 고려가 목종대에 들어 고려가 비밀리에 송과의 교섭 재개를 위한 외교행동을 취하기도 함. 고려는 비밀리에 송과 외교적 접촉을 가지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거란과의 정상관계를 이어감.

전연의 맹. 1004.

- 송(宋)은 군비(軍備)로서 요(遼)에 매년 비단 20만 필, 은(銀) 10만 냥을 보낸다.
- 진종은 성종의 모친을 숙모(叔母)로 삼고, 양국은 형제의 교분을 갖는다.
- 양국의 국경은 현상대(→현 상태)로 하고, 양국의 포로 및 월경자(越境者)는 서로 송환한다.
- 송의 황제와 요의 황제는 형제의 교분(형제 관계)을 갖는다.

1009년. 섭정으로 실권을 잡고 있던 거란의 승천태후가 12월에 사망하고, 고려에서는 穆宗 시해사건에 이어 顯宗이 즉위했는데, 이제 親政을 하게 된 거란의 젊은 聖宗은 고려의 사태에 대해 흥분. 993년 전쟁으로 고려가 조공 대상을 송에서 거란으로 돌렸다고는 하지만 거란 측에서 볼때 그동안 고려의 거란에 대한 복속이 미흡하다고 판단.

1010년 거란의 11월 과연 보병과 기병 40만 군대가 고려로 쳐들어와 흥화진을 포위. 고려의 친조 약속의 위반이 거란의 上國으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강동 6주의 요구와 뒤이은 1014년의 침공까지 초래. 1010년 2차 전쟁 때 고려의 내정 문제를 빌미로 침략하기 시작하여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무력을 통해 전연지맹 이후 송을 압도한 동아시아 유일한 맹주로서의 위상을 고려에게도 확실하게 인정받고자 한 것.

1014년 6월에 고려 토벌을 명하는 거란 성종의 조서가 내려진 때부터 1019년에 이 전쟁이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 거란은 대대적인 침공만도 4차례 반복했으나 끝내 고려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특히 마지막 1019년 전투에 서는 참패의 결과.

고려는 1018년 10월에 禮賓少卿 元永을 거란에 보내 화친하기를 청했지만 거란의 고려 정벌계획 실행. 강감찬의 귀주대첩. 고려 역시 국운을 건 大戰을 준비하여 姜邯贊을 上元帥로 임명하고 20만 8천여 명의 출정군을 寧州에 배치해서 북계 주진군과 합하면 약 30만 명에 달하는 규모의 방어군을 편성.

1020년 화의 성립. 고려에서는 거란에게 稱藩納貢하기로 결정하자, 사대 외교의 핵심인 국왕 책봉과 연호 사용이라는 형식의 복원을 결정하고 빈번히 사절을 보내면서 우호관계를 다져감.

반면에 고려는 30년 전쟁에서의 선전으로 거란 앞에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이후로도 거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춘 것은 아니지만 강대국인 거란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관계를 100년 이상 유지.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는 전과를 올려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서 거란 및 다른 국가들과 교섭.

거란은 고려의 왕위 계승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신을 파견. 왕이 사망하면 조위사·칙제사 등을 파견했고, 왕위 계승자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복사도 파견. 거란이 정기적으로 하생신사를 파견했던 것은 생일을 중시하는 자국의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편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고려에게도 적용. 책봉관계를 맺은 고려국왕에 대한 예우의 성격과 함께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재개하는 것을 평화적으로 견제하는 역할도 하면서,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